

##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 승 현\*\*·임 다 혜\*\*\*·강 민 아\*\*\*\*

### 요약

본 연구는 Rodgers(1989)가 제안한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인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를 이론적 분석 틀로 하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제 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세대인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총 41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라는 세 가지 자원의 결핍이 삶의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라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저연령 집단(만 19세-26세)과 고연령 집단(만 27세-34세)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의 결핍 및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 모두 청년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모두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만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중집단분석 결과, 저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연령 집단에서만 소득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연령 집단의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저연령 집단보다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불안정성, 청년세대, 주관적 행복감,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구조방정식 모형(SEM)

\* 본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연구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정화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5S1A3A2046566).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seunghoon.hahn@gmail.com)

\*\*\* 제2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Dahye.yim@gmail.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minahkang@ewha.ac.kr)

## 1. 문제제기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통계청, 2017a),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층 중에서도 비경제 활동 인구<sup>1)</sup>가 51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작년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심각한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통계청, 2017b). 더불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2016.12)」에 따르면, 1인 청년(19-34세) 가구 중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이 20%를 넘는 경우가 47%였고, 이는 청년부부 가구의 39.8% 및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의 34.2%보다 높은 수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더욱이 주거빈곤 문제에 있어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64.7%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너무 적거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 저축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이었다(헤럴드경제, 2017. 1.17). 이처럼 한국의 청년들은 저임금으로 인한 주거빈곤을 경험하거나, 장기 실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등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일련의 어두운 지표들 확인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세대와 관련된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은 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고(이승윤 외, 2016),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주거문제 등 실제적으로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금까지 청년의 삶과 불안정성,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지금까지 청년의 삶과 행복에 관한 논의가 주로 청년세대의 경제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1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1) 비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업자나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통계청, 2017a).

2) 가령,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 정책과 같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최근에 촉발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으로서 과연 얼마의 금액이 청년의 기본 소득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이승윤 외,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불안정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였고, 노동부문에서의 불안정성에 관한 개념을 제안하였던 Rodgers(1989)의 불안정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둘째, 지금까지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됨으로써(이명숙, 2015), 청년세대 내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여 청년 내 집단 별로 특화된 정책설계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로 설정하고, 이 연령대 내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취업연령인 만26~27세를 기점으로 만 19세부터 만 26세를 청년세대의 저연령 집단, 그리고 만 27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청년세대의 고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이태진 외, 2016)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sup>3)</sup>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년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검토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청년 행복의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불안정성(precariousness)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인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 각각에 대하여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이 행복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집단 내 차이를 보기 위하여 연령대 집단을 구분하여 저연령 청년집단과 고연령 청년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책적 제안과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3) OECD와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에서는 만15-29세를 청년세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청년층의 연령은 만20세 성인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은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설정되고 있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보다 넓은 범위로 설정되고 있어 청년층의 정확한 연령집단 구분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태진 외(2016)에서 제시한 청년세대 연령구분인 만19세에서 만34세가 최근 청년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연령 구분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이 설정하였고,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의 구분은 한국의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신입사원 평균연령인 약 만 27세(남 29.2세, 여 27.9세) 및 평균 대학졸업 연령인 25-29세를 감안하여 만 26세를 기점으로(뉴시스, 2016) 구분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청년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청년들의 행복<sup>4)</sup>에 관한 이슈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연구 주제로서 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15세-29세의 청년층 인구는 2000년에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990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9.4%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6a). 반면, 노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가 됨으로써 한국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통계청, 2016b).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고, 연구의 시급성에서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덜하다는 인상을 준다. 가령,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에는 피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에 비하여 그 파급효과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기도 하였다(김민정·조공호, 2009). 이러한 사실은 곧 청년층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삶의 영역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논의되어 개선될 수 있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즉, 인구구성 면에서도 그 비중이 적어 정치적으로 주요한 대상이 되기 어렵고, 장년층과는 달리 부양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 그리고 대부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청년들의 행복과 불안정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불안정과 행복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청년층이며, 그 결과 청년들의 인적자본 형성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지연됨으로써 이들의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다(손혜경, 2009; 이승윤 외,

4) OECD가 채택한 행복의 정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포괄한 다양한 평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좋은 정신 상태(good mental status)”로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뿐만 아니라 긍정적·부정적 정신 상태를 포함하며, 대체적으로 행복(happiness)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사회참여, 주거환경, 안전, 행복 등) 중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본다 (Stiglitz, et al., 2009; OECD, 2013). 행복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행복의 정의에 관한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측정 역시 어렵고(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웰빙, 삶의 질, 삶의 만족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성보훈, 윤선아, 2010; 서은국 외, 2010), 이들 용어는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측정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Veenhoven, 2007; 황명진 & 심수진, 2008).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용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행복’ 혹은 ‘행복감’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016).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이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빈곤이 세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근간에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정함과 불행이 청년의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깔려 있다(미스핏츠, 2015).

지금까지 청년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노년층 등 다른 인구집단에 빈번하지 않은 데(이종아·한창근, 2015), 이들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경향은 직접적으로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자아개념과 직무만족, 건강, 대인 신뢰, 주변 안전과 같은 변수들이 청년들의 주관적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서봉언·김경식, 2016),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조혜정, 2013), 특정 심리프로그램이 청년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정영주 외, 2010), 청년세대가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 관계적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이명숙, 2015), 그리고 청년층을 포함하여 성인기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연구(김미혜 외, 2014)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대개 ‘어떠한 변인이 청년의 행복감(주로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청년층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연령집단과 다르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장년세대는 경제적 만족도가, 노년세대는 주관적 건강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되는데(김미혜 외, 2014), 청년층의 행복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희망감’ 혹은 ‘미래 무망감(future hopelessness)’이 제시되고 있다. 미래 무망감은 미래에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에 관한 청년들의 자기 인식을 의미하며(김미혜 외, 2014; 이명숙, 2015),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복에의 영향 요인으로 지목된 변인이다.

두 번째 연구 경향은 청년들의 불안한 경제적 상태를 청년 행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청년 연령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 요인을 탐구한 연구들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가 이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김민정·조궁호, 2009; 박혜숙, 2012; 조혜정, 2013; 이선희 외, 2015), 청년들의 경제적 부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축과 행복감 간에 관계를 탐구한 연구에서도 학자금과 취업준비로 인한 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부채가 이들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아 & 한창근, 2015).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행복감과 직

무만족, 임금, 건강수준 등에서 구직을 한 청년들에 비해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으며, 이는 또 다시 청년들의 실업에 악영향을 미친다(Winkelman, 1997; Bell & Blachflower, 2009). 즉, 청년 실업이 개인의 일생동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청년기에 장기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30년 이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Bell & Blachflower, 2009), 실업은 전체 연령집단의 행복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30-40대와 29세 이하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Winkelman, 1997). 즉, 지금까지 한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김성희, 2015; 이승윤 외, 2016, 2017),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불안한 경제적 상황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그 동안의 청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중대한 한계점을 나타낸다. 첫째로는 기존 연구들은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요 요인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분석했을 뿐, 청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틀이나 설명이 없어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명료한 이해가 다소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odgers(1989)가 제시한 불안정성 요소를 차용하여, 이러한 불안정성의 요소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지금까지 청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이들의 경제적 상태에 집중되어 그 이외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이는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다면적이고도 포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변인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지지,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등과 같이 청년의 행복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경로를 이론적 분석 틀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의 행복이 비단 경제적 요소만이 아닌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청년 불안정성의 다면성과 구성요소

### (1) 불안정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불안정성( precariousness)’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불안정성 개념에 대한 관심은 노동과 고용 영역에서 꾸준히 발견된다(Bae & Kang, 2017). 불안정성( precariousness)은 불안정 고용( precarious employment)과 개념적으로 함께 사용되어 왔는데, 이 개념은 유럽의 좌파 노동운동권( activist group)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일어나면서 노동 현장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연결되었다(Vosko, et al., 2009). 한편, 사회과학 분야에서 불안정성 혹은 불안정 노동 개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의 개념과 연결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Barbier, 2004; Vosko, et al., 2009), 불안정 노동( precarious work) 혹은 불안정 노동자( precarious workers) 개념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 social and economic precariousness)이라는 용어가 빈곤문제와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했다(Vosko, et al., 2009). 이후 1980년대 초기 영미권에서 불안정 고용( precarious employment)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촉발된 불안정성 개념이 확산되었으며(Rodgers, 1989), 불안정 노동의 초기 개념은 주로 임시직과 같이 표준적인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한 임금 근로로 한정되었으나, 점차 불안정성의 다면적 요소<sup>5)</sup>에 주목한 시각들이 점증하면서 개념적으로 구체화 되어 왔다(Vosko, et al., 2009).

노동에서의 불안정성 개념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Rodgers(1989)의 불안정한 일자리( precarious job)의 개념을 불안정성에 대한 다면적인 개념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한다(Vosko, et al., 2009: 7). Rodgers(1989)는 서유럽의 불안정 노동( precarious work)에 관한 연구에서 정기적이고 영구적인 임금노동을 안전한( secure)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듯이, 이러한 특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불안정하다고 지칭하였다(Rodgers, 1989: 3).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서의 불안정한 상태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는데, 먼저, 임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이고, 실직의 위험이 높은 것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직장을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이는 곧 ‘확실성의 정도( degree of certainty)’로

5) 불안정성 혹은 불안정 노동을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Rodgers(1989), Lapparra et al.(2004), Vosko(2006) 등을 꼽을 수 있다. Lapparra et al.(2004)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시간적 측면(고용의 지속성), 사회적 측면(사회권 및 보호권), 경제적 측면(소득 보장), 근로 환경 등 크게 네 가지로 보았고, Vosko(2006)는 Rodgers(1989)의 불안정 노동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는데,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degree of uncertainty), 노동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규제 효과성( regulatory effectiveness), 그리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정부 등 다양한 형태로 보전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개인 소득( adequacy of the income package) 등을 주요한 개념적 속성으로 꼽고 있다. Rodgers(1989)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본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이나 임금, 작업속도 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통제력’ 역시 불안정성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금이 낮은 직업을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임금 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가 불안정성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끝으로 노동자들이 법과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항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보호(Protection)’를 받지 못하는 것 역시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이렇게 Rodgers는 확실성, 통제력, 임금수준과 같은 경제적 자원, 적절한 보호 제도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불안정성의 개념적 속성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결핍이라는 속성을 제외한 세 가지 속성들을 불안정성의 개념적 틀로 차용하였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을 개인적 수준(micro-level)과 제도적 수준(macro-level)으로 나누어 볼 때(Bae, 2016; Bae & Kang, 2017), 제도적 보호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로는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성의 개념을 청년 개인별로 경험하고 있는 자원의 결핍,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한의 부재로 정의하였으며, 세 가지 불안정성의 차원이 각기 청년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노동과 고용 영역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온 불안정성의 개념과 그 속성을 과연 청년세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적용 타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안정성 개념을 비단 노동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Bae, 2016; Bae & Kang, 2017)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Neilson & Rossiter, 2008)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청년세대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삶의 모습이 노동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의 속성과 유사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2) 불안정성의 각 구성요소와 청년의 행복 간 관계

### ① 자원의 결핍과 행복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sup>6)</sup> 크게 건강과 소득,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건강과 행복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청년들의 건강상태

6) 일반적으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행복의 결정요인은 소득, 건강상태,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고용상태, 성격유형, 그리고 문화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OECD, 2013), 이 중에서도 개인이 보유한 자원의 성격을 지닌 요소는 소득과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소득자원과 관련될 수 있는 고용상태라 할 수 있다. 성격유형은 매우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KGSS와 같은 사회조사에 상세히 조사되지 않고, 또한 문화는 동일한 국가에 속해 있다면 같은 문화를 소유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추후 논의하겠지만 고용상태의 경우 미취업자가 많아 부득이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들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가령, 청년기에 겪게 되는 취업의 실패 경험은 해당 시기에 경제적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 scar effect)를 남긴다(김수정·김영, 2013). 특히 청년기의 장기실업은 향후에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와 향후에 급여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제적인 ‘상처’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건강, 행복, 그리고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Bell & Blanchflower, 2011). 또한 청년 실업이 청년들의 건강문제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에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불면증, 알코올과 약물 남용,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것과 같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이훈구 외, 2000; 장재윤 외, 2004; 정나라 외, 2010; Axelsson & Ejlertsson, 2002; Hammarstrom et al., 2002).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해 논의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주관적 행복감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Lamu & Olsen, 2016).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건강상태 역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Dolan, 2009).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행복감 간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Shields & Price, 2005). 특히, 청년들의 건강과 행복 간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청년들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혜정, 2013; 이명숙, 2015; 서봉연 & 김경식, 2016).

청년들의 소득수준도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마련 등 경제적인 압박에 직면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김민정·조궁호, 2009; 박혜숙, 2012; 조혜정, 2013; 이선희 외, 2015; 이종아·한창근, 2015). 특히 청년의 시기는 생애 주기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험하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개인의 행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순희·임은정, 2014; 이승윤 외, 2017).

그런데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상대적인 소득수준 중에 어떤 것이 청년들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소득수준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lan, 2009). 즉, 절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도 높아지지만, 소득이 증대할수록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감소하게 되므로(Easterlin, 1974; Diener & Seligman, 2004; Rojas, 2011),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미혜 외, 2014).

끝으로, 사회적지지 여부나 수준도 청년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고찰이 필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청년들의 행복이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청년들의 행복감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청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키는 ‘외적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구재선·김의철, 2006).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물질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과 중요하게 관련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조혜정, 2013).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이고 행복감 역시 높아진다(박희수 & 문승연, 2014; 이명숙, 2015). 특히, 한국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취업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행복감을 높이는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조혜정, 2013).

## ② 불확실성과 행복

앞서 Rodgers(1989)의 논의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임시직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본 것과 같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자신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Escckersley, 2004; 배주운, 2008; 조혜정, 2013). 이처럼 불확실성은 주로 현재의 불안한 고용상황이나 경제적 상태에서 비롯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문제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불안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건강이나 노후에 관한 불확실성은 청년보다는 장년이나 노년집단에서 보다 심각하게 체감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은 이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유선(2015)에 따르면 20대 임금노동자의 25%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20-29세 임금노동자 333만 3천여 명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23.9%로, 30대(11.8%) 및 40대(16.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6.1%인데, 이 역시 30대(30%) 및 40대(38%)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즉, 청년들은 저임금시간제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 시기도 늦어지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장년 및 노년층에 비해 미래가 더 불안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김정임(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노후 준비가 20-30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생계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준비는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은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이승윤 외, 2017). 이처럼 우리 청년들은 당장은 다른 세대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심각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와 행복에 관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예측해볼 수 있다. 노후 준비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행복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주 외, 2014), 이는 곧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후 준비도를 통해 낮아지거나 제거되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노후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상태와 재정적 상황, 사회적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이소정, 2009; 유용식, 2013; 이용재, 2013; 강인, 2016). 가령, 한국의 4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중·장년층 성인들 중에서도 여성이나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반대로 학력이 높거나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후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이소정, 2009) 노후에 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태나 학력과 같은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유용식, 2013), 반대로 경제적 상태가 좋거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용재, 2013; 강인, 2016). 이와 같이 청년들이 지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특히 경제적인 자원과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불확실성은 다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확실성의 매개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 ③ 통제권한의 부재와 행복

청년세대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게 지목되고 있는 변수는 바로 ‘삶에서의 명확한 목표(purpose)’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 즉,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감(hope)’이

다(Bronk, et al., 2009). 반대로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미래 무망감) 역시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는 장년이나 노년 세대와는 차별되는 청년세대의 독특한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서경현·이경순, 2010; 김미혜 외, 2014; 이명숙, 2015).

김미혜 외(2014)에서는 경제적 만족도, 가족의 정서적 지원, 본인에 대한 타인의 태도, 그리고 희망감이 모두 청년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on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adolescent),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sup>7)</sup>, 그리고 청년기(young adult)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으로 표현되는 희망감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의 만족을 높여주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거나 의지가 있는 것과 같은 변수로 측정된 희망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청년들은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bersole & Depaola(1989)이 제시한 것과 같이 노년세대는 과거의 성취로부터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발견하는 반면, 청년세대는 미래에 달성할 목표와 현재의 즐거움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Ebersole & Depaola, 1989; 김경미 외, 2011).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앞서 Rodgers(1989)가 고용부분에서 작업속도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통제받는 상태와 같이, 청년들 역시 미래에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미래 무망감을 느낀다면 이는 곧 자신의 삶을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권한을 상실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권한의 상실은 청년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인이 자신의 미래와 목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가 충분한 내·외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희망감이 좌절되기도 하는데(김정호, 2006),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통제권한의 부재는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7) 'emerging adult(혹은 adulthood)'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주경필(2015)의 견해에 따라 '성인 도래기'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는 청년의 행복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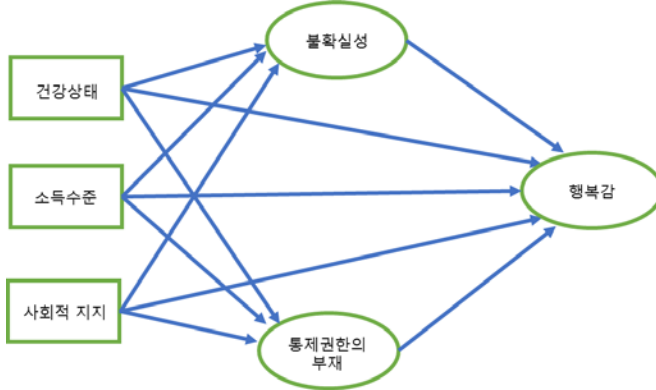
- 1-1.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2. 세 가지 자원인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의 매개적 역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1-3. 세 가지 자원인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적 역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 2-1.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 2-2. 저연령 집단 및 고연령 집단에서 세 가지 자원(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지지)의 결핍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의 매개적 역할은 어떠한가?
- 2-3. 저연령 집단 및 고연령 집단에서 세 가지 자원(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지지)의 결핍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통제권한의 부재의 매개적 역할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자원의 결핍과 청년층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적 역할



## 2) 분석대상 및 자료

분석자료는 KGSS(2010)이며, 분석대상은 한국의 만19세-34세 사이의 청년 415명이다.<sup>8)</sup> 현재 KGSS 자료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축적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2010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불안정성의 다면적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2010년 자료에서 포괄적으로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조사는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에서 공통 문항으로 조사된 건강(health)에 관한 특별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인식이나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염려, 나이듦에 관한 염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서적 안녕감 등 다른 년도의 조사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감

Diener(1984)에 의하면 행복감은 크게 삶에서의 인지적 만족감, 높은 빈도의 긍정적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적 정서 등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서은국 외, 2010; Diener, 1984). 행복감을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Diener(1984)의 제안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지만<sup>9)</sup>,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

8) 원 자료에서 만 19-34세 청년층은 총 444명이지만 주요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있는 29건의 응답자를 제거하여 41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요소를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sup>10)</sup>

주관적 행복감을 묻는 문항인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정서적 안녕감을 묻는 문항인 ‘다음은 지난 1달 간 귀하의 감정(기분, 정서) 및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행복하다~매우 불행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하였고,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항상 그랬다~전혀 그렇지 않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역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 (2) 독립변수: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자원의 결핍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인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좋다~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은 개인 소득수준이 아닌 가구 소득수준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사실 청년들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소득으로 측정할지, 혹은 가구소득으로 측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아 여전히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들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들의 개인 소득수준은 정밀하게 측정되기 어렵다. 특히, 소위 ‘수저계급론’, 혹은 미취업자 간에도 계급이 있다는 ‘백(100)수’와 ‘갓(God)수’와 같은 신조어<sup>11)</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구소득 수준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가령, 미취업

9) 서은국 외(2010)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는데, 한국인의 행복은 크게 삶의 만족(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고각성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저각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고각성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저각성 부정적 정서)로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에 속하는 문항은 세 가지로 ‘즐거움’, ‘행복한’, ‘편안한’ 정서에 관한 것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관적 행복감(행복한)과 정서적 안녕감(편안한)을 포괄하는 것이다.

10) KGSS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별도문항으로 측정하지만, 정서적 안녕감을 묻는 “차분하고 평온한”(calm and peaceful) 느낌과 상태에 관한 문항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이 두 가지 변수를 ‘행복감’이라는 동일한 잠재변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명숙(2015) 역시 KGSS를 활용하여 청년의 행복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종속변수인 행복감을 주관적 행복감(전반으로 인지하는 행복 또는 불행의 정도)과 정서적 안녕감(지난 1달간 ‘평온감’ 및 ‘활력감’)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을 행복의 범주에 포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1) 두 용어는 취업준비생 중에서도 가구소득의 차이로 인해 계층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즉, ‘백(100)수’는 100번 취업에 도전해도 번번이 실패한다는 의미이고, ‘갓수’는 부모의 월 소득이 높은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자기개발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소위 ‘신이 내린 백수’라는 의미이다.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의 월 소득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대학 시절에 인턴이나 해외연수 경험이 더 많은데(한국고용정보원, 2016)<sup>12)</sup>, 이처럼 청년층은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특징 때문에 부모 경제력과 같은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KGSS 자료에는 개인의 소득수준(월 평균 근로소득)에 결측치가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sup>13)</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년들의 가구 소득수준을 묻는 문항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고, 응답으로는 ‘평균보다 훨씬 높다~평균보다 훨씬 낮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작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 변수는 친지와 친지 이외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고민이나 경제적 지원, 집안일과 같은 기타 도움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인 ‘지난 1년간 귀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귀하의 친지(가족 또는 친척)/친지 이외의 사람(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은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까? 귀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지난 1년간 귀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귀하의 친지(가족 또는 친척)/친지 이외의 사람(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들어주었습니까? 귀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지난 1년간 귀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귀하의 친지(가족 또는 친척)/친지 이외의 사람(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은 기타 도움(집안일, 자녀양육, 간호 등)을 주었습니까? 귀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의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자주 해주었다~전혀 해주지 않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3) 매개변수: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건강 불확실성’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명명한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건강 불확실성을 묻는 문항은 ‘귀하는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할 때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하십니까?’와 ‘귀하는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에 처했을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하십니까?’의 2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

12) 한국고용정보원(2016)에 따르면, 자기계발형 사회초년생에 속하는 청년들은 부모나 친지로부터 학비를 제공받으며, 인턴 등과 같이 사회경험에 있어서도 자신의 전공에 적합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42.7%는 부모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다. 반면 생계형 근로 경험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주로 학자금 용자를 통해 학비를 조달했으며, 전공과 잘 맞지 않는 근로를 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51.1%는 부모 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자기계발형 청년들과 차이를 보인다.

13) 분석대상 415명 중 169명이 근로소득이 없어 개인 소득수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걱정한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을 묻는 문항으로는 ‘나는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할까봐 걱정한다는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한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의 3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매우 동의~매우 반대’의 5점 리커트 척도였고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통제권한의 부재는 ‘미래 무망감’과 ‘목표달성 불가능성’으로 명명되는 두 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미래 무망감을 묻는 문항은 ‘귀하는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이고, 응답으로는 ‘매우 동의~매우 반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무망감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목표달성의 불가능성을 묻는 문항으로 ‘귀하는 내가 얻으려 애쓰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동의~매우 반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달성의 불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4) 통제변수: 취업여부, 혼인여부, 이웃에 대한 불신뢰도

통제 변수로는 취업여부와 혼인여부, 이웃에 대한 불신뢰의 정도를 활용하였다.<sup>14)</sup> 취업여부는 미취업인 경우 0, 취업인 경우 1로 코딩하였고, 혼인여부 역시 미혼인 경우 0, 혼인인 경우 1로 코딩하였다.<sup>15)</sup> 이웃에 대한 불신뢰의 정도는 동네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 문항 중 ‘다음은 귀하가 사시는 집 근처 1km 지역(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내 동네 사람들은 서로관심을 보인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와 ‘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문항 두 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동의~매우 반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점

14) 초기 분석모형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행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자본(대인신뢰) 역시 포함하였으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분석의 간명성을 위하여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15) KGSS에서는 혼인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 1, 사별 2, 이혼 3, 별거 4, 미혼 5, 동거 6으로 측정하고 있었으나, 응답 시점에서 법적인 혼인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기혼과 사별, 별거의 경우에는 혼인상태로 판단하여 1로 코딩하였고, 그 외 이혼, 미혼, 동거는 미혼인 상태로 판단하여 0으로 코딩하였다.

수가 높을수록 이웃에 대한 불신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4)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ver.22와 Amos ver.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층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의 결핍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건강상태, 가구소득 수준, 사회적 지지 각각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를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경로를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간접경로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집단에 따라 구조 모형과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성이 187명(47.5%), 여성이 218명(52.5%)이었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19세부터 26세의 저연령 집단은 166명(40%), 27세부터 34세의 고연령 집단은 249명(60%)이었다. 미취업자는 169명(40.7%)으로 취업자 247명(59.3%)보다 적었고, 미혼자는 281명(67.7%)으로 기혼자 134명(32.3%)보다 많았다. 아울러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모든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Kline, 2005) 변수들의 분포가 모두 정규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82이었고,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각각 2.74와 2.89였다. 또한 건강 불확실성은 4점 척도에서 평균 2.31점였고, 미래 불확실성은 5점 척도에서 2.76점으로 다소 낮았다. 통제권한의 부재의 측정변수인 미래무망감과 목표달성 불가능성은 5점 척도에서 각각 1.76점과 1.6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은 5점 척도에서 각각 3.44점과 3.25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표 1]).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 = 415)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87명 (47.5%)			
	여성	218명 (52.5%)			
연령대	만19~26세	166명 (40%)			
	만27~34세	249명 (60%)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척도)	표준편차	왜도	첨도
-	주관적 건강상태	3.82 (5점)	1.013	-.617	-.229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 평가	2.74 (5점)	.886	-.147	-.300
	사회적 지지	2.89 (5점)	.821	.186	-.170
불확실성	건강 불확실성	2.31 (4점)	.882	.108	-.897
	미래 불확실성	2.76 (5점)	1.111	.103	-.945
통제권한의 부재	미래무망감	1.76 (5점)	.913	1.098	.708
	목표달성 불가능성	1.65 (5점)	.825	1.187	1.033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3.44 (5점)	.834	-.200	.099
	정서적 안녕감	3.25 (5점)	1.061	-.099	-.786
통제변수	항목	빈도 (%)			
이웃 불신도	이웃 불신뢰도	3.37 (5점)	.944	-.033	-.749
취업여부	미취업자	169명 (40.7%)			
	취업자	246명 (59.3%)			
혼인여부	미혼자	281명 (67.7%)			
	기혼자	134명 (32.3%)			

##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건강,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부분에서 자원과 불확실성(건강 불확실성과 미래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미래 무망감과 목표달성 불가능성)가 행복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미래 불확실성, 혼인여부와 정서적 안녕감 간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통제변수인 취업여부 역시 일반적 행복감 및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 모든 변인들과 주관적 행복 및 정서적 안녕감 간에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특히, 건강과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등 3가지 자원은 모두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안녕감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건강 불확실성과 미래 불확실성, 그리고 통제권한의 부재를 나타내

는 미래 무망감과 목표달성의 불가능성은 모두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 불확실성을 제외한 건강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들은 정서적 안녕감과도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자신이 보유한 건강과 소득,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이 많을수록 더욱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청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가 클수록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경로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N = 4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건강상태	1											
2. 가구소득	.070	1										
3. 사회적 지지	.053	.022	1									
4. 건강 불확실성	-.181**	-.328**	-.020	1								
5. 미래 불확실성	-.097*	-.100*	.010	.400**	1							
6. 미래 무망감	-.221**	-.200**	-.182**	.313**	.157**	1						
7. 목표달성 불가능성	-.233**	-.201**	-.118*	.253**	.132**	.741**	1					
8. 혼인여부	-.057	.030	-.024	-.064	.084	-.059	-.028	1				
9. 취업여부	-.088	.055	-.098*	.019	.012	-.010	-.022	-.005	1			
10. 이웃 불신도	-.071	-.061	-.091	.118*	-.005	.091	.060	-.149**	.146**	1		
11. 주관적 행복감	.188**	.238**	.200**	-.258**	-.120*	-.405**	-.293**	.191**	-.062	-.168**	1	
12. 정서적 안녕감	.298**	.066	.146**	-.201**	-.087	-.251**	-.237**	-.022	-.091	-.145**	.369**	1

\*  $p < .05$ , \*\*  $p < .01$ .

### 3) 측정모형 분석

불안정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들이 각 변수들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의 결핍’의 하위 요소인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소득의 평가, 사회적 지지 정도 변인의 각 요인 부하량은 .40보다 낮아 자원의 결핍이라는 하나의 잠재요인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측정변인으로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987$  ( $df = 6$ ),  $\chi^2/df = .664$ , GFI = .997, CFI = 1.000, RMSEA = .000, 90% CI [.000, .050]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3]).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검증

(N = 415)

$\chi^2$	df	$\chi^2/df$	GFI	CFI	RMSEA (LO90, HI90)
3.987	6	.664	.997	1.000	.000 (.000, .050)

아울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판별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수렴타당도를 검증하는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모두 수용 기준값인 0.7과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고, 잠재변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인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과 다른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결정계수)보다 클 경우 확보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표 4]).

[표 4]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N = 415)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 지수	판별 타당도
불확실성	건강 불확실성	1	.908			.919	.864	.160
	미래 불확실성	.611	.441	.161	3.803***			
통제권한의 부재	미래 무망감	1	.975			.988	.960	.549
	목표달성 불가능성	.740	.760	.064	10.997***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1	.746			.915	.848	.136
	정서적 안녕감	.842	.494	.143	5.899***			

\*\*\*  $p < .001$

#### 4)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15.160$  ( $df = 43$ ,  $p < .001$ ),  $\chi^2/df = 2.678$ , GFI = .955, CFI = .905, RMSEA = .064, 90% CI [.050, .078]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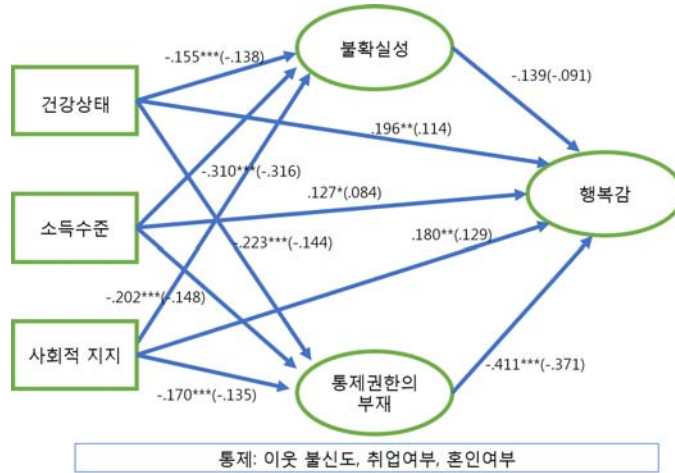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15)

$\chi^2$	df	$\chi^2/df$	GFI	CFI	RMSEA (LO90, HI90)
115.160***	43	2.678	.955	.905	.064 (.050, .078)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주) 경로계수: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N = 415)

변수 간 경로		B	$\beta$	S.E.	C.R.
건강상태	→ 불확실성	-.138	-.155	.040	-3.445***
소득수준		-.316	-.310	.046	-6.923***
사회적 지지		-.006	-.005	.049	-.114
건강상태	→ 통제권한의 부재	-.144	-.223	.033	-4.333***
소득수준		-.148	-.202	.038	-3.955***
사회적 지지		-.135	-.170	.040	-3.374***
건강상태	→ 행복감	.114	.196	.035	3.291**
소득수준		.084	.127	.041	2.040*
사회적 지지		.129	.180	.041	3.134**
불확실성	→ 행복감	-.091	-.139	.048	-1.870
통제권한의 부재		-.371	-.411	.061	-6.124***
이웃불신		-.079	-.127	.035	-2.278*
취업여부		-.077	-.064	.067	-1.154
혼인여부		.200	.159	.070	2.839**

\*  $p < .05$ , \*\*  $p < .01$ , \*\*\*  $p < .001$ .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과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의 행복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6).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직접 경로에서는 청년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 $\beta = .196, p < .01$ )와 소득수준( $\beta = .127, p < .05$ ), 사회적 지지( $\beta = .180, p < .01$ ) 모두는 청년들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보유한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또한 불확실성은 청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통제권한의 부재( $\beta = -.411, p < .001$ )는 청년들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 청년의 경우,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의료비 마련에 대한 걱정,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불확실성이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앞서 고찰하였던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들은 스스로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낄 때 행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무망감이 청년의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자원이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확인해보면, 세 가지 자원들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건강상태( $\beta = -.155, p < .001$ )와 소득수준( $\beta = -.310, p < .001$ )의 경우에만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세 가지 자원들이 통제권한의 부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건강상태( $\beta = -.223, p < .001$ ), 소득수준( $\beta = -.202,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170, p < .001$ )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청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거나 가구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할 경우,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염려와 건강을 잃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정서적·재정적 지지와 도움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 자체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변으로부터 정서적·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곧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지지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자원과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가 한국 청년의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세 가지 자원 각각이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확인하였다(표 7). 그 결과,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통제권한의 부재( $\beta = -.411, p < .01$ )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309, p < .05$ ),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의 평가( $\beta = .253, p < .01$ )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 가지 자원 각각이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불확실성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155, p < .05$ )와 소득수준( $\beta = -.310, p < .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권한의 부재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223, p < .01$ )와 소득수준( $\beta = -.202, p < .01$ ), 사회적 지지( $\beta = -.170, p < .01$ )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불확실성( $\beta = .021$ ) 및 통제권한의 부재( $\beta = .092$ ) 전체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eta = .113, p < .01$ ). 또한 청년들의 소득수준이 불확실성( $\beta = .043$ ) 및 통제권한의 부재( $\beta = .083$ )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는데( $\beta = .126, p < .01$ ), 이로써 행복에 대한 소득수준의 직접 효과가 제거되었다. 한국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통제권한의 부재( $\beta = 0.69$ )를 통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70, p < .01$ ). 또한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 부재 각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해 본 결과 (Baran & Kenny, 1986), 세 가지 자원 모두는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만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확인해본 결과, 세 가지 자원과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는 한국 청년의 행복의 45.3%를 설명하였다.

[표 7] 효과 분해의 결과

(N = 415)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복감	.196*	.113**	.309*
건강상태	건강상태 → 불확실성 → 행복감		.021	
	건강상태 → 통제권한의 부재 → 행복감		.092***	
	불확실성	-.155*	-	-.155*
	통제권한의 부재	-.223**	-	-.223**
소득수준	행복감	.127	.126**	.253**
	소득수준 → 불확실성 → 행복감		.043	
	소득수준 → 통제권한의 부재 → 행복감		.083**	
	불확실성	-.310**	-	-.310**
	통제권한의 부재	-.202**	-	-.202**
사회적 지지	행복감	.180**	.070**	.250**
	사회적 지지 → 불확실성 → 행복감		.001	
	사회적 지지 → 통제권한의 부재 → 행복감		.069**	
	불확실성	-.005	-	-.005
	통제권한의 부재	-.170**	-	-.170**

[표 7] 효과 분해의 결과 (표 계속)

(N = 415)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불확실성	행복감	-0.139*	-	-0.139*
통제권한의 부재		-0.411**	-	-0.411**
이웃불신	행복감	-0.127*	-	-0.127*
취업여부		-0.064	-	-0.064
혼인여부		0.159*	-	0.159*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자원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각각의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8], [표 9]).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 간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은 총 네 가지로, 두 집단의 측정계수와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모형 A), 두 집단의 측정계수의 동일성을 제약한 측정제약모형(모형 B), 두 집단의 측정계수와 구조계수의 동일성을 제약한 구조제약모형(모형 C), 끝으로 두 집단의 외생잠재변수 간 구조공분산의 동일성을 제약한 구조공분산 제약모형(모형 D)을 설정하여, 두 연령 집단의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서의 측정계수, 구조계수, 구조공분산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각각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서 비제약모형(모형 A)과 측정제약모형(모형 B)을 비교해본 결과,  $\Delta\chi^2 = 3.274$ ,  $\Delta df = 3$ 이었고,  $p = .351$ 로 나타나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제약모형(모형 B)과 구조제약모형(모형 C)의 비교에서는  $\Delta\chi^2 = 5.982$ ,  $\Delta df = 9$ 이었고,  $p = .742$ 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구조제약모형(모형 C)과 구조공분산제약모형(모형 D)을 비교해본 결과,  $\Delta\chi^2 = 10.350$ ,  $\Delta df = 15$ 이었고,  $p = .797$ 로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의 측정모형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에서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측정 동일성 조건을 충족하였다.([표 8]).

다음으로, 구조모형에서의 연령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비제약모형(모형 A)과 측정제약모형(모형 B)을 비교해본 결과  $\Delta\chi^2 = 14.167$ ,  $\Delta df = 3$ 이었고,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두 모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따라서 연령집단을 만19-26세의 저연령 집단과 만 27-34세의 고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로모형을 확인하였다.

[표 8] 측정모형에서의 연령 집단별 동일성 검증

(N = 415)

모형	$\chi^2$	df	$\chi^2/df$	RMSEA (LO90,HI90)
A	15.281	12	1.273	.026 (.000, .059)
B	18.555	15	1.237	.024 (.000, .055)
C	21.263	21	1.103	.006 (.000, .042)
D	25.631	27	.949	.000 (.000, .036)
모형 A:B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B^2 - \chi_A^2 = 3.274$	$df_B - df_A = 3$		$p = .351$
모형 B:C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C^2 - \chi_B^2 = 5.982$	$df_C - df_B = 9$		$p = .742$
모형 C:D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D^2 - \chi_C^2 = 10.350$	$df_D - df_C = 15$		$p = .797$

주) 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C: 구조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D: 구조공분산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structural covariance)

[표 9] 구조모형에서의 연령 집단별 동일성 검증

(N = 415)

모형	$\chi^2$	df	$\chi^2/df$	RMSEA (LO90,HI90)
A	203.751***	86	2.369	.058 (.047, .068)
B	217.918***	89	2.449	.059 (.049, .069)
C	232.513***	103	2.257	.055 (.046, .065)
D	365.797***	112	3.266	.074 (.066, .083)
모형 A:B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B^2 - \chi_A^2 = 14.167$	$df_B - df_A = 3$		$p = .003 < .01$
모형 B:C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C^2 - \chi_B^2 = 28.762$	$df_C - df_B = 17$		$p = .037 < .05$
모형 C:D $\chi^2$ 값의 차이검증	$\chi_D^2 - \chi_C^2 = 162.046$	$df_D - df_C = 26$		$p = .000 < .001$

주) 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C: 구조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D: 구조공분산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structural covariance)

\*\*\*  $p < .001$ .

연령집단 별 경로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먼저, 세 가지 자원 중에서도 가구 소득수준은 저연령 집단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연령 집단에서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beta = .188, p < .01$ ).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모두에서는 건강상태( $\beta = -.156, p < .01, \beta = -.144, p < .05$ )와 소득수준( $\beta = -.277, p < .001, \beta = -.326, p < .001$ )이 이들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는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모두에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319, p < .001, \beta = -.155, p < .05$ ), 소득수준( $\beta = -.247, p < .01, \beta = -.180, p < .01$ ), 사회적 지지( $\beta = -.157, p < .05, \beta = -.162, p < .05$ ) 모두 통제권한의 부재에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불확실성 및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권한의 부재는 두 집단 모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연령 집단( $\beta = -.309, p < .001$ )보다는 저연령 집단( $\beta = -.387, p < .01$ )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표 10). 특히, 저연령 집단에서는 자신이 인식하는 가구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 정도와 행복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연령 집단에서는 가구 소득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컸다.

통제변수 중에서도 혼인여부는 저연령 집단( $\beta = .181, p < .05$ )에 비해 고연령 집단( $\beta = .232, p < .001$ )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시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발달과업들을 성취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감도 높는데(장휘숙, 2009), 청년들 중에서도 고연령 집단 청년일수록 결혼이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일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가구 소득과 같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데(이민아, 2010), 고연령 청년들은 저연령 청년들보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압박이 더 클 것이므로 혼인여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여부는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중집단 분석에서 저연령 집단에서만 부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192, p < .05$ ). 이러한 결과는 특히 20대 초반의 저연령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김태완 & 최준영, 2017) 비교적 이른 나이에 취업을 했다는 사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연령 청년들의 취업상태는 오히려 이들의 불안정한 삶을 나타내며,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0] 연령집단별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415)

변수 간 경로		저연령 집단(만19~26세) (N = 166)	고연령 집단(만27~34세) (N = 249)
건강상태		-.165**(-.156)	-.124*(-.144)
소득수준	→ 불확실성	-.368***(-.277)	-.296***(-.326)
사회적 지지		.106(.071)	-.064(-.066)
건강상태		-.188***(-.319)	-.107*(-.155)
소득수준	→ 통제권한의 부재	-.183**(-.247)	-.131**(-.180)
사회적 지지		-.130*(-.157)	-.127*(-.162)
건강상태		.088*(.222)	.139**(.176)
소득수준		-.011(-.021)	.157**(.188)
사회적 지지		.119*(.214)	.104(.116)
불확실성	→ 행복감	-.061(-.163)	-.141(-.153)
통제권한의 부재		-.261**(-.387)	-.353***(-.309)
이웃불신		-.091*(-.191)	-.052(-.067)
취업여부		-.172*(-.192)	-.033(-.020)
혼인여부		.374*(.181)	.342***(.232)

주) 괄호는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  $p < .01$ , \*\*\*  $p < .001$ .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면적인 불안정성이 이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Rodgers(1898)가 제시한 노동에서의 불안정성의 구성요소 중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그리고 통제권한의 부재 등 세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건강과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라는 각각의 자원이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 행복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안정성의 구성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경로가 청년세대 내에서 연령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 청년들을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성의 요소는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라는 자원의 결핍과 통제권한의 부재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정서적·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자원이 결핍된 경우 행복감이 낮았다. 특히, 한국 청년들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래 무망감과 목표달성의 불가능성으로 대변되는 통제권한의 부재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년세대의 독특성을 반영한 변수로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도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본 결과, 세 가지 자원 모두는 통제권한의 부재의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 중에서도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효과분해 결과, 가구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경로의 유의성이 제거되고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의 가구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좌절됨으로써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다양한 측면들이 청년층 외에 다른 연령대에서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면, 중장년층 역시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하였고(김명소 외, 2003),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는 청년세대가 가족이나 친인척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행복했던 것과는 달리, 자녀와의 관계가 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중장년층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한 이유도 있지만, 이들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성취와 심리적인 불안에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명소 외, 2003). 그리고 앞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즉, 경제적 준비와 관계, 건강, 여가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중장년일수록 행복한데(최동주 외, 2014), 이처럼 다양한 자원들이 중장년층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결과(최동주 외, 2003)는 중장년층 역시 청년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목표와 기대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년층의 경우에도 경제적 상태 혹은 주관적 소득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자원이라 할 수 있다(Clark et al, 1996; 김명소 외, 2003; Frijters & Beaton, 2012). 또한 이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행복하였고(공수자 외, 2004; 곽인숙, 2013; 김미혜 외, 2014), 특히 배우자의 있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제민, 2012). 특히 배우자의 생존과 사망여부는 이들

의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대체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노인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민아, 2010; 유제민, 2012). 또한 자녀와의 관계욕구가 노년층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서양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기도 하다(유제민, 2012). 그리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노년층은 과거에 이미 성취한 결과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Depaola, 1989).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성의 주요 요소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세대마다 당면한 발달과업이나 목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곽인숙, 2013). 비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여 이들의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과 불안정성이 행복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불안정성과 행복 간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각 세대의 불안정 요소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세대별로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세대 내에서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연령 집단에서는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 통제권한의 부재, 이웃에 대한 불신뢰도, 취업여부와 혼인여부 같은 비교적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데 반해, 고연령 집단에서는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통제권한의 부재, 혼인여부와 같이 몇몇 요인들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저연령 청년들의 행복감은 고연령 집단의 청년들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연령 집단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와 이웃에 대한 불신뢰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연령 집단보다는 가족과 이웃의 도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중에서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과 임시직·일용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저연령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한 고연령 청년들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김태완 & 최준영, 2017). 또한 통제권한의 부재 역시 고연령 집단보다는 저연령 집단에서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소위 ‘수저 계급론’과 같이 청년 스스로가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팽배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저연령 청년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고용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청년들이 보유한 자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희망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고용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청년 생활보장’과 같은 개념이나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승윤 외, 2017). 청년의 생활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2005년에 19-34세의 한국 청년들은 10년 후인 2015년에 29-44세가 되어도 그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김태완 & 최준영, 2017), 지금 불안정한 청년들은 나중에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년들의 빈곤의 고착화나 불안정한 삶에 대한 해법 중에서도 청년의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은 사실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청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청년들의 행복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어떤 자원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결핍으로부터 파생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도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평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년들이 당면한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가 이들의 미래까지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만큼 적어도 청년들의 ‘출발선’이 비슷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 내 자원과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실험과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공공부문이나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으면 국민들의 행복감 역시 높다는 것이 밝혀졌듯이(Hudson, 2006; Bjørnskov et al, 2008; Tokuda et al, 2010), 국민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낄 때 국민 개개인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고찰하였듯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분석대상인 총 415명의 청년들 중에서 고용 형태를 묻는 문항과 고용의 지속성 문항, 그리고 시간제 및 전일제 여부에 관한 문항 모두에서 199명이 ‘해당없음’으로 분류되어 분석대상의 절반 가량이 결측치

가 됨으로써 분석에 활용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청년들의 취업여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집단 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경로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향후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론적 분석 틀과 다양한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년세대와 세내 내 연령집단 간 차이를 탐구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집단 내의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질적연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불안정성의 다면적 요소들과 행복 간의 경로에 대해 비교연구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이해되거나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청년세대의 불안정성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다면적인 불안정성의 개념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청년세대 내에서도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간 행복에 대한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여 연령별로 특화된 정책 제언을 위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특히, 청년들의 행복은 비단 이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건강이나 소득,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나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염려, 혹은 미래에 대한 좌절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하는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청년들의 불안정성과 행복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 현재 암울한 지표로만 표현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비교

(N = 2,287)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030명 (45%)				
	여성	1257명 (55%)				
연령대	만19~26세	166명 (7.3%)				
	만27~34세	249명 (10.1%)				
	만35~64세	850명 (37.2%)				
	만65세 이상	171명 (7.5%)				
잠재변수	측정변수	세대구분	평균 (척도)	표준편차	왜도	첨도
-	주관적 건강상태	청년층	3.82 (5점)	1.013	-.617	-.229
		중장년층	3.46 (5점)	1.119	-.339	-.642
		노년층	2.37 (5점)	1.337	.593	-.875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 평가	청년층	2.74 (5점)	.886	-.147	-.300
		중장년층	2.671 (5점)	.999	.027	-.603
		노년층	2.02 (5점)	.931	.363	.886
	사회적 지지	청년층	2.89 (5점)	.821	.186	-.170
		중장년층	2.43 (5점)	.789	.413	-.115
		노년층	2.06 (5점)	.841	.801	.392
불확실성	건강 불확실성	청년층	2.31 (4점)	.882	.108	-.897
		중장년층	2.31 (4점)	.926	.213	.168
		노년층	2.47 (4점)	1.015	-.002	-1.147
	미래 불확실성	청년층	2.76 (5점)	1.111	.103	-.945
		중장년층	3.10 (5점)	1.218	-.182	-1.031
		노년층	3.43 (5점)	1.186	-.441	-.705
통제권한의 부재	미래무망감	청년층	1.76 (5점)	.913	1.098	.708
		중장년층	2.18 (5점)	1.152	.668	-.595
		노년층	3.11 (5점)	1.288	-.189	-1.029
	목표달성 불가능성	청년층	1.65 (5점)	.825	1.187	1.033
		중장년층	2.19 (5점)	1.195	.773	-.437
		노년층	3.12 (5점)	1.284	-.157	-.959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청년층	3.44 (5점)	.834	-.200	.099
		중장년층	3.51 (5점)	.882	-.144	.053
		노년층	3.31 (5점)	1.021	-.129	-.097
	정서적 안녕감	청년층	3.25 (5점)	1.061	-.099	-.786
		중장년층	3.40 (5점)	1.215	-.237	-1.001
		노년층	3.26 (5점)	1.250	-.156	-1.010

[부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비교 (표 계속)

(N = 2,287)

통제변수	항목	빈도 (%)				
이웃 불신도	이웃 불신도	청년층	3.37 (5점)	.944	-.033	-.749
		중장년층	2.93 (5점)	1.056	.091	-.668
		노년층	2.40 (5점)	1.242	.665	-.596
취업여부	미취업자 취업자	청년층		169명 (40.7%) 246명 (59.3%)		
	미취업자 취업자	중장년층		246명 (28.9%) 604명 (71.1%)		
	미취업자 취업자	노년층		66명 (25.7%) 191명 (32.3%)		
혼인여부	미혼자 기혼자	청년층		281명 (67.7%) 134명 (32.3%)		
	미혼자 기혼자	중장년층		114명 (13.4%) 735명 (86.5%)		
	미혼자 기혼자	노년층		9명 (3.5%) 248명 (96.5%)		

■ 참고문헌 □

- 강인(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곽인숙(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6.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743-770.
- 구재선, 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미혜, 문정화, 성기옥(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4(4), 857-875.
- 김민정, 조궁호(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4), 47-62.
- 김성희(2015).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노동연구, 31, 5-37.
- 김수정, 김영(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 결과. KLSI 이슈페이퍼, 11.
- 김정임(2009).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신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53-484.
- 미스핏츠(2015).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탐사 리포트타주. 서울: 코난북스.
- 박혜숙(2012). 대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실천정도와와의 관련성. 동서간호학연구지, 18(1), 31-39.
- 박희수, 문승연(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97-219.
- 배주윤(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이경순(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27-343.
- 서봉언, 김경식(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3), 91-115.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213-232.
- 성보훈, 윤선아(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9(6), 103-134.

- 손혜경(2009). 스웨덴의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68-75.
- 유용식(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738-747.
- 유제민(2012). 연구논문: 성과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한국 노인의 행복결정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375-400.
- 이명숙(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민아(2010).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 44(4), 32-62.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1), 72-80.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용재(2013). 베이비붐세대의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53-261.
- 이종아, 한창근(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75-100.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16-42.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2000). 경제불황이 20 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2), 87-101.
- 장휘숙(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정나라, 김호, 이승묵(2010). 청년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47(1), 45-50.
- 정순희, 임은정(2014). 청년 1 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조혜정(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주경필(2015). 성인도래기 (Emerging Adulthood) 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小考).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최동주, 이묘숙, 이준용(2014).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와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42), 161-185.
- 통계청(2016a).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서울: 통계청.
- \_\_\_\_\_(2016b).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서울: 통계청.
- 한국고용정보원(2016).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고용이슈, 9(3), 76-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청년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42, 125-204.
- 황명진, 심수진(2008). 연구노트: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서울, 청년 1인가구, 10곳 중 3곳이 지하나 옥탑방”.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17일).

“올해 신입사원 평균 나이 ‘男29 女28’”. 뉴스시스. (2016년 12월 28일).

- Axelsson, L. & Ejlertsson, G. (2002). Self-report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young unemployed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2), 111-119.
- Barbier, C.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f ‘employment precariousness’ in Europe. Learning from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in Europe, European Xnat Cross-national research papers, Seventh series, 7-18.
- Bae, G. (2016). *A study on the precariousness of health care coverage system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e, G. & Kang, M. (2017). Universal but precarious: A case study of the Sou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0*, 115-133.
- Baran, M. & Kenny,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173-1182.
- Björnskov, C., Dreher, A. & Fischer, A.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ial Choice and Welfare*, *30*(1), 119-173.
- Cotton Bronk, K., Hill, L., Lapsley, K., Talib, L. & Finch, H. (2009). Purpose, hope, and life satisfaction in three age group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00-51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Seligman,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Dolan, P., Peas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Ebersole, P. & DePaola, S. (1989). Meaning in life depth in the active married elderl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3*(2), 171-178.
- Eckersley, R. (2009). Populatio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How useful are th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1), 1-12.
- Frijters, P. & Bea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 Hammarström, A., Janlert, U. & Winefield, H.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u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Kline,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Lamu, N. & Olsen, A. (2016). The relative importance of health, income and social relations for subjective well-being: An integrative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152, 176-185.

Laparra, M., Barbier, C., Darmon, I., Düll, N., Frade, C., Frey, L. & Vogler-Ludwig, K. (2004). Managing labour market related risks in Europe: Policy implications. Final report ESOPE-project.

Neilson, B. &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51-72.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Paris.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Wester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In G. Rodgers, G. & J. Rodger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Geneva: ILO.

Rojas, M. (2011). Happiness, income, and beyond.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6(3), 265-276.

Stiglitz, J., Sen, A. & Fitoussi, P. (2009).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revisited. Reflections and overview. Pari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Shields, A. & Price, W. (2005). Explor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England.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68(3), 513-537.

Tokuda, Y., Fujii, S. & Inoguchi, T. (2010). Individual and country-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0), 2574-2593.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OECD World Economic*, 231-253.

Vosko, F. (2006). Precarious employment: Towards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labour market insecurity. *Precarious Employment: Understanding Labour Market Insecurity in Canada*, 3-39.

Vosko, F., MacDonald, M. & Campbell, I. (eds). (2009). *Introduction: Gender and the concept of precarious employment in Gender and the contours of precarious employment*. Routledge.

◀ Abstract ▶

## **Precariousness and Happiness of South Korean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Han, Seungheon · Yim, Dahye · Kang, Mina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precariousnes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ubjective well-being by adopting the three forms of precariousness suggested by Rodgers(1989) such as lack of resource,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as its analytical framework.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analyzing the path model of self-rated health, income level and social support(three forms of resource)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Study population include young adults aged between 19 to 34 with a sample size of 415 using data of the 8th wave of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2010. Study population is divided into lower-age group (aged between 19-26) and upper-age group (aged between 27-34)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by using Multiple Group Analysis. Study results show that three forms of resources,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had direct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South Korean young adults and disempowerment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mong the factors. In addition, self-rated health and income level had indirec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both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while social support had indirec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only through disempowerment. Results from the Multiple Group Analysis indicate that among the two age groups, income level on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upper-age group. In addition, disempowerment had greater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upper-age group

---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an the lower-age group.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nd discussion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precariousness, young adults, subjective well-be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structural equation model

◆ 2017.4.11. 접수 / 2017.6.11. 1차수정 / 2017.6.21. 게재확정.